

치솟는 기름값에 시름 깊은 서민들

휘발유 광주 1ℓ 당 1509.02원·전남 1502.87원...연일 상승 교통비·난방비 부담 가중...국제유가 상승에 당분간 강보합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에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와 전남지역 휘발유와 경유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데, 난방유마저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매서운 한파에 기름값 상승이 겹치면서 겨울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3원 오른 1ℓ 당 1539.2원을 기록하면서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경유 가격도 1ℓ 당 전주보다 2.3원 오른 1331.3원으로 집계돼 21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보통휘발유의 경우 평균가격은 지난 11월 셋째주(12~18일) 1ℓ 당 1509.02원(전남 1502.87원)으로 1500원대를 진입한 뒤 이날 현재 1528.02원(전남 1525.44원)까지 오르는 등 나날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차량용 경유 역시 광주는 지난 11월 셋째주 1301.54원, 전남은 11월 넷째주(19~25일) 1301.12원으로 이미 1300원대를 돌파했다. 현재 평균가격은 광주 1319.61원, 전남 1318.08원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차량용 기름값이 멈출 줄 모르는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화물·운송업체 종사자 등 생계를 위해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칠 줄 모르는 기름값 상승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광주의 한 택배영업소 관계자는 "경유값이 올라가면서 하루종일 차량을 운영하는 택배기사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기름값이 더 오를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2월 둘째주 주유소 등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5원 오른 1ℓ 당 883.3원으로 휘발유와 경우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이날 광주지역 등유 평균가격은 한달 전 911.52원보다 16.42원 오른 927.94원으로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818.86원에서 28.97원 증가한 847.83원을 기록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등유값이 전국 평균 가격보다 비싸다.

더욱이 지난 14일 광주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면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등 겨울 동장군(冬將軍)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고공행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북해 지역 공급 차질 가능성, 중국 원유 수입 증가, 미국 원유 채고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국내 유가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자구안 거부

"정상화 논의의 구성원 참여 우선"...강행시 총파업 예고

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과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하 자구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일반적으로 추진할 경우 총파업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놔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광주공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성원들의 고향을 쫓아내는 철 지난 계획에 불과하고 이미 2010년 워크아웃 당시 실패로 결론이 난 정책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측은 희망퇴직과 임금 동결, 상표권 문제 해결 등 분야에 걸친 재무개선을 통해 총 1483억원을 마련한다는 자구안을 노조에 제시하고 노사동시 합의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는 "노조와 채권단, 경영진, 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실질결과에 따른 정상화계획에 합의하고 금호타이어 지배구조를 구성원과 주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대표기업으로 새로 만들기 위한 논의에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채권단과 경영진이 이를 거부하고 자구안을 추진한다면 지역총파업을 결의하고 오는 29일 서울 산업은행과 청와대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이고, 내년 1월경 전 구성원(5000명)이 서울에

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일단 자구안 논의를 회계법인 실무결과가 나온 뒤 미루고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을 먼저 진행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적자 구조가 심화·누적되고 있는데 유동성마저 바닥나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노사가 채권단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을 비롯한 구조조정용 물론 청산절차 돌입까지 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가 코앞까지 닦던 부도와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선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에 대해 채권단을 설득해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연말에 돌아오는 물품대여음과 급여지급을 위해선 비용 절감과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지역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 위기상황에서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고통을 얼마나 나누느냐에 따라 운명을 가를 수 있다"며 "지금의 회사를 살리는 게 우선인만큼 구조조정에 협조하고 경영정상화에 동참하는 교통분담의 자세가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스타워즈 캐릭터와 사진을"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스타워즈 에디션 행사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에서 '파워봇·파워워킹 스타워즈 에디션'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스타워즈 제작사 루카스필름의 협업으로 탄생한 로봇청소기 '파워봇 스타워즈 에디션'은 영화 캐릭터를 본딴 디자인과 캐릭터 음성과 영화 음악을 적용한 제품이다.

이번 행사는 영화 '스타워즈 : 라스트 제다이' 개봉 첫 주말에 맞춰 진행했다. '스타워즈 에디션' 로봇청소기와 무선청소기를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존과 영화 속 캐릭터와 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했다.

삼성 무선청소기 '파워워킹 스타워즈 에디션'은 영화 캐릭터 '스톰트루퍼'가 사용하는 레이저 건의 느낌을 살려 디자인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메가박스 하남스타필드'에서 '파워봇·파워워킹 스타워즈 에디션' 체험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포토존에서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영화 속 캐릭터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보해소주, 커피를 품다

콜드브루 넣은 '딸꾹다방' 출시...알코올 함 줄여 선호도 높여

지난 2015년 부러더 소다를 출시해 국내 탄산주 시장을 개척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콜드브루를 넣은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새롭게 선보인 '딸꾹다방'은 술을 마시고 싶지만 알코올 함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탄생했다. 술을 마신 뒤 나오는 '딸꾹질'에 현대인의 필수공간인 커피를 복고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다방'이라는 단어를 더했다.

딸꾹다방 컨셉은 '커피에 취해 스르르, 밤에 먹는 꿀잠커피'다. 알코올 함을 줄여 쾌적한 안티구아 원두로 만든 콜드브루를 넣었다. 소비자 대상 사전조사결과 스모키한 향이 강한 과테말라 안티구아 원두가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택됐다.

딸꾹다방은 단순히 커피향만 넣은 게 아닌 진짜 콜드브루 원액을 넣어 맛과 향을 살렸다. 콜드브루는 커피가루를 차가운 물에 장시간 우려내 쓴 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미미를 느낄 수 있다.

알코올 도수는 16.9도, 용량은 360ml다. 출고가는 1079.74원이며 강남과 홍대, 건대 등 수도권 업소에 우선 판매한다.

보해양조는 연간 1인당 커피소비량이 400잔이 넘는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인에 딱 맞는 소주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행을 선도하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딸꾹다방을 찾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품 길이에 여성작가가 손수 쓴 캘리그라피로 제품명을 표현해 단순하면서도 세련미를 더했다.



이민규 마케팅 부장은 "딸꾹다방은 맛과 향이 뛰어난 콜드브루 원액을 넣어 소주향을 싫어하는 소비자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며 "앞서 주와 복분자, 매취순, 부러더 소다 같은 보해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수신 줄고 여신 확대

10월 수신 증가규모 6분의 1로...여신 5735억→7554억

지난 10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폭이 전월보다 크게 축소된 반면 여신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최근 발표한 2017년 10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신 증가규모는 전월 1조1783억원에서 1929억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예금은행 수신은 공공예금을 제외한 수시 입출식예금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연휴로 인한 9월 말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증가규모가 전월 3675억원에서 529억원으로 감소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자사운용회사를 중심으로 전월 8107억원에서 -338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10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신 증가규모는 전월 5735억원에서 7554억원으로 확대됐다.

예금은행 여신은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전월 2550

억원에서 4118억원으로 확대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가계대출이 확대되면서 전월 3184억원에서 3436억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한국은행측은 올해 주택담보대출과 저금리로 인한 저축성예금 등이 줄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6	15	25	26	33	4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886,622,688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2,484,049	55
3	5개 숫자 일치					1,463,805	1,972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0,062
5	3개 숫자 일치					5,000	1,678,240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